



2022년 1월 16일(제1071호) 연중 제2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봉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우리의 사소한 움직임이기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곳, 저녁에 눈을 감아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매일의 우리 삶이 기적과 같이 시작되고 이어지고 있음을 떠올려 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매주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과 일들 속에서 나를 이끌고 보살펴주시는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번 주의 복음은 우리에게 안내해줍니다.

갈릴래아 카나의 한 혼인 잔치에서 사람들이 평소에도 즐겨 마시던 음료, 특히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동이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혼인 잔치의 들뜨고 기쁜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놀라운 능력을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혼인을 한 부부와 그 가족들,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라셨기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때로는 달콤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시련들을 마주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시며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사소하게 여겨지는 인간적인 일들과 감정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있던 이들은 적었습니다. 성모님과 제자들, 물을 날랐던 일꾼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새로 혼인한 부부와 잔치를 마련한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를 계속 이어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받게 되는 예수님의 보살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기적에 동참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혼인 잔치의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일꾼들이 물을 나르도록 하셨습니다. 너무도 보잘것없고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독에 물을 채우고 다시 날랐던 일꾼들의 도움, 이 사소한 움직임도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기적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모아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원신(시도요원) 신부  
해병대요원(해병대교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62,1-5

회답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제 2 독 시

1코린 12,4-11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11

영성제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열여섯 번째 시한

처음 하루는 순풍을 따라 항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를 동반한 큰 폭풍우가 일어나 사흘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30척이 넘는 강남(상해) 배들이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배는 바다에 나가 본 적이 없는 작은 배였는데, 비바람이 거세지자 배가 파도 때문에 몹시 흔들리고 무섭게 이리저리로 내던져져서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선으로 끌고 오던 종선(從船)을 끊어 버리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래도 위험이 계속되었으므로 결국 우리는 두 돛대를 다 베어 버리고 식량까지 바다에 던져 버려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배는 짐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기는 하였으나 거대한 파도 가운데서 비바람이 부는 대로 사방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교우들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쇠약해졌고 또 삶에 대해 절망하여 슬퍼져서 울며 “이제는 그만이다.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고들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의 상본을 보이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로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신병 중이었지만 삶은 음식을 역지로 들면서 일을 하며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제가 으뜸 사공으로 채용한, 이미 예비 신자인 외교인에게 영세를 주었습니다.

배의 키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배가 바람과 파도의 충격으로 대양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돛들을 묶어 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고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줄들이 끊어지면서 돛들이 떠내려 갔습니다. 이어 나무토막들을 함께 명석에 묶어서 파도를 향해 던졌으나 다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도움을 잃고 오직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기대를 걸고 잠을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비도 그치고 바람도 약해져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우리는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음식을 들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도록 명하였습니다.

원기를 회복한 후 우리는 항해를 계속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돛대도, 돛도, 키도, 종선도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작은 내 손의 꿈



어릴 적 꿈 하나,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이 작은 손 하나 더하고 싶다고.	그 큰 꿈을 작은 내 손이 꾸었습니다.  다 큰 내 손은 무얼 꿈꾸고 있는지.
--	--

상화이야기

기사의 혼인잔치



이 그림은, 결혼식 피로연 장면일지라도 이렇게 우아하면서 또 차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의 중앙에서 약간 치우친 곳에, 신부가 벽에 화려한 양탄자를 뒤로하고 앉아 있고, 식탁 위에는 각종 요리들이 즐비한데, 각각의 요리들이 세부까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제리르 디비드, 1500년경 作  
나무 위 유희, 100x128cm  
루브르 미술관, 파리

식탁에는 차례입은 귀빈들이 모여 앉아있으나, 입을 열고 담소를 나누기보다 입을 굳게 다물고, 어딘가를 바라보거나, 관계를 바라보거나, 음식을 자르고 있다(신부 맞은편 남성). 식탁의 왼쪽 모서리와 왼쪽편에는 성모님과 예수님이 위치해 있으며, 그 뒤로 보이는 대리석 기둥 뒤로는 중세풍의 마을 풍경이 펼쳐져 있다.

왼쪽 가장자리 부분에는 후원자와 그의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그려져 있다. 포도주를 따르는, 혹은 포도주 담당자 뒤에 후원자의 부인인 듯한 여인이 있으며, 그녀는 허리에 목주를 차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새부도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주일: 천지마 시장포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좌 국군중앙 성당 미사
- 때: 1월 16일(주일) 10:00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3)’ 인니

- 업로드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클럽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상제상시로 기쁨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